>>> 인화여자고등학교 학교탐방 이어서

자율이 있는 학교 조성

변종섭 교장선생님 인터뷰

지난 3월 부임한 변종섭 교장선생님. "학생들이 공부하기 편안한학교"를 만드는 것이 선생님의 경영관이다. 때문에 교사와 학생의복지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고 최고의 교사를 위한 지원과 예우,공부하기 쉽고 편한 환경 조성에힘써 상향 평준화를 위한 최종 목표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말한다.

"교사들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치면 학생들은 잘 배우고 익혀 서 뛰어난 실력을 갖춘 인재가 됩 니다. 때문에 현재는 모두에게 귀 한 시간이지요."

"사람 사이 벽이 없는 학교." "오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학

시청각실에서 이루어진 교장선생 님의 강의를 들은 학생들의 직접적 이고도 감동적 반응은 교장선생님께 보낸 팬레터에서 알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교장선생님. 오늘 강의가 너무 감명 깊어서 이렇게 선생님께 몇자 적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보아 왔던 교장선생님들 중에서 가장 멋있으세요. 존경해요! 사실 3학년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도 많은 부담과 짐을 지고 있는데 오늘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힘이 났어요. 교장 선생님 말씀에 힘입 어 열심히 할 수 있을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사랑합 니다!"

이런 뜨거운 반응을 접하고 기분 이 어떠신지?

기특하고 이쁩니다. 학교에 대한 애착과 구체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 었지요

우리 학교가 자리하고 있는 인천의 이미지가 강남과 같은 교육 중심의 도시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때문에 타 지역의 더 좋은 교육이나 사회적 여권을 찾아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지요. 해서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 우리 학교의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 먼미래까지 생각하고 설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교육에 대한 마인드가 있으시다면…

학생들의 인권은 꼭 지켜져야 할 부분입니다. 학생들은 교사들이 생 각지 못했거나 뛰어넘는 발상과 기 발한 상상들로 넘쳐납니다.

보호되어야 마땅하고 존중받아야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아직 미성숙한 인간이기 때문에 상당부분교사들의 지도 아래 있어야 한다고봅니다. 다만, 조심스러운 것은 교



변종섭 교장선생님

권은 사법이나 여타의 법들과는 성격이 달라서 억압적이거나 강압적이면 실패할 수 밖에 없다라는 분명한 예가 있기에 이를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운동을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 습니다.

일주일에 3일 정도 웨이트트레이 닝을 하고 있고, 매일 원적산(철 마산)에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안하면 영 불편하고…

체력이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야 업무 능력도 향상이 되고, 그런 이유로 운동을 그만두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보디빌 당 대회에도 출전했었는데 그만큼 운동을 좋아하기도 하죠.

변종섭 교장선생님 약력

중앙대학교 후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후 1977 상인천여자중학교 교직 시작

인일여고 제물포고 동인천고 계산고 백령중 인천고 교사

2002. 3 - 2004. 8 안남중 교감 2004. 9 - 2005. 8 선인고 교감 2005. 9 - 2009. 2 선인중 교장 2009. 3 -인화여고 교장

학생들이 언제나 최우선

이원우 교감선생님 인터뷰

"학생들을 위한 학교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

81년부터 교사생활을 시작하면서 남학교에서 대부분을 보내고 인화 여고가 여학교로서는 처음이었다는 이원우(51) 교감 선생님.

인화여고에서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학생들과의 시간들을 천천히 되새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교내에서 매일 살다시피 생활하면서도 임기 동안 큰 사고가 없었고 잘 따라준 학생들이 매우 고맙다는 선생님. 선생님의 그 마음이 학교 곳곳에 베어나고 있었다.

"얼마 전 영국으로 연수를 갔었는데 그때 우리 학교의 교육환경이 굉장히 선진적이고 타학교의 모범이 될 만한 수준이라고 느꼈습니다. 어깨가 으쓱해졌지요. 되려 답답함을 느낀 부분들도 있었으니까요. 다만, 잔디로 파랗게 덮힌 운동장을 보고 있자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을 위해서라면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어 자꾸 욕심이 난다는 교감선생님.

비록 잔디구장은 없었어도 학교 전체에 스며든 선생님의 배려가 모

두 따뜻한 이야기 거리요, 자랑거 리였다.

아직 개방하지 않은 도서관을 구 석구석 누비시는 선생님.

"서울과 인천지역 여러 학교와 도서관들을 둘러보고 조사 했더니 학생들이 책을 읽을 때는 넓은 공 간으로 나와 책을 읽는 것보다 구 석진 곳에서 집중해 가며 읽는 경 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때 문에 벽이나 남는 공간은 그냥 버 려두지 않고 최대한으로 활용해 학 생들이 편히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조성을 해 주었지요."

녹음이 우거진 창가 앞. 운치있 게 놓여진 책상과 의자에 손수 자 리 잡는 선생님.

"이렇게 전망이 좋은 창가는 독 서의 깊이를 더할 수 있겠다는 생 각이 들었습니다. 해서 독서대를 신경써서 설치하도록 했지요."

학생들의 감성까지 배려한 선생 님의 세심함은 본건물 중앙 테라스 에도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차와 글을 함께 접하는 양질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북카페 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몸에 좋은 음료나 간단한 간식을 담은 자판기 등을 설치해 여유있는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지요."

뿐만 아니라 보건실의 아늑함을



이워우 교간서생님

지나니 차 한대가 고스란히 들어올 자리가 나왔다.

"민약의 경우를 대비해 아프거나 다친 학생이 있다면 신속하게 구급 차가 들어오고 또 나가야하니까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는 필수 지요. 또, 아이들이 한창 예민할 시기이니 보건실이 집과 같은 편안 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써야하는 것도 물론입니다"

타학교의 모범으로 거듭나기 위해 해외는 물론이요, 이름난 학교와 전문가의 조언을 섭렵고자 발품을 아끼지 않았으셨던 이원우 교감선생님.

그 노고가 교정을 떠난 이후에도 학생들에게 두루 미치고 기억될 것 이다. 강내영 기자 kny@eduyonhap.com



목 마르다고 급하다고 아직도 아무 곳에서나 효과없는 광고를 하고 계십니까?

학생들과는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변종섭 교장선생님



에 대한에 한 합니다고, 경에서는 경식 환경이었지만 현경에 수대한 함께는 지입 출제한 입업에서는 정말 입고 있는 휴식 합성에게 자하시 일반기 보다는 환경하면 영향을 첫만입하여 우리의 성공을 공꾸는 회사 환경이었지만 소세기에 기반되어도 용지하는 세계인 기반시에서만 기반되어 공고장의 함께 비전하는 역대관에서 의효합니다. 당전을 수 있는 용기에 날 수 있는 항을 위한 건강한 피에너 역대관에서 세계의 비전을 위해 회원이 날개를 받시되었습니다.

THE COST BRE DISCHARD AND THE CONTROL BY AND A DATE OF THE COST BRE DISCHARD AND THE CONTROL BY AND AND ADDRESS OF THE CANDIDATE OF THE COST THE COST

THE REAL PROPERTY AND ADDRESS OF THE PARTY ADDRESS OF THE PARTY



(MC)-1024 - HIGH BY ME 27-40-1-36 1 - 41-1024 - HIGH BY ME 27-40-1-36 10-47-004-1044 - THAIR GOAL BEST





TEL: (032)546-0662 FAX: (032)546-0091